LUXURY

FEBRUARY 2021

2021 COLOR SPECIAL

설 명절을 위한 선물

NEW MUSEUM 8

Van Cleef & Arpels

빙하 위의 낯선 정체 Olafur Eliasson

이탈리아 남부 티롤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행성(?). 해발 3212m의 그라반드Grawand산 오키오크페르네르Hochjochferner 빙하를 따라 영구 설치된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빙하의 관점Our Glacial Perspectives'이다. 이 작품은 물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위한 플랫폼인 토킹워터TalkingWater 재단의 의뢰로 탄생되었다. 작품은 빙하에 의해 침식된 능선을 따라 시작된다. 총 410m의 좁은 길 위에 9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 사이의 간격은 지구 빙하기의 시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길의 끝, 정상에는 강철과 유리 고리(링)로 이루어진 파빌리언이 등장한다. 파빌리언은 특정한 날 태양의 경로를 추적, 천문 관측 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 관람을 위해선 파빌리언 안쪽의 데크에 서서 고리에 시선을 정렬하면 된다. 그렇다면 고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양끝의 2줄 고리는 지평선을, 가운데 3줄 중 상단은 하지의 태양 경로를, 중간 고리는 춘·추분을, 하단은 동지의 경로를 추적하도록 설계되었다. 사각의 유리판은 태양의 움직임을 15분 단위로 나눈 것으로, 방문객은 태양의 위치에 기초해 하루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 유리판의 블루 컬러는 19세기 하늘의 푸른 정도를 측정하는 시안계를 차용한 것. 낯선 그의 파빌리언은 지구와 빙하, 환경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한다. www.olafureliasson.net

Olafur Eliasson, Our Glacial Perspectives, 2020, Steel, Coloured glass, Installation view: Hochjochferner glacier, South Tyrol, Photo: Studio Olafur Eliasson
Commissioned by: Talking Waters Society © 2020 Olafur Eliasson

하늘에 그린 '위로' Janet Echelman

미국 플로리다주의 항구도시 세인트피터즈버그St. Petersburg에 쉼을 선사하는 작품 하나가 등장했다. 재닛 에클먼의 영구 설치 작품 '벤딩 아크Bending Arc'다. 길이 약 129m, 강철보다 15배나 강한 초경량 섬유로 만든 이 작품은 240km/h의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부두 밑바닥에서 자라는 따개비 군락의 기하학적 형태와 비치 파라솔을 묘사한 역사적인 엽서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는 디자인 과정에서 이 지역이 인종차별의 장벽을 허문, 시민운동의 중요한 장소라는 걸 알게 됐다. 실제로 이곳의 시민운동을 통해 1957년 미국 대법원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해변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도덕적 세계의 아크는 길지만, 그것은 정의를 향해 휜다"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해 작품명을 '벤딩 아크'라 붙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단면 역시 여러 개의 아크(원호) 형태다. 바람에 흔들리는 아크는 다채로운 형태의 안무를 만들어내고, 낮에는 공원에 그림자를, 밤에는 마젠타와 바이올렛 컬러의 강렬한 횃불beacon로 변신한다. 하늘을 캔버스 삼아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에클먼.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새로 오픈한 수원 영통의 앨리웨이 광고에서 그녀의 '어스타임 코리아Earthtime Korea'를 만날 수 있어 더욱 위안이 된다. www.echelman.com

글 설미현(게스트 에디터)

Janet Echelman, Bending Arc, St. Petersburg, FL